

시론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애리조나 주립대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은 어디일까? 누구나 하버드, 옥스퍼드 등 세계의 유명 대학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각종 대학평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을 평가하는 WURI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Innovation) 순위에서 미네르바 대학과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2년 연속 1-2위를 차지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혁신적인 사례는 전 세계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애리조나 주립대를 방문해 교육방법과 제도를 배우고 있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처음부터 혁신대학은 아니었다. 2002년 마이클 크로(Michael Cro

w) 총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새로운 대학으로 변화했다. 20년 이상 애리조나 주립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크로 총장은 취임 시부터 학과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개혁을 추진했다.

소비자 중심의 대학이 되기 위해, 애리조나 주립대는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 학습시스템을 도입해 학생의 학습성과와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립대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은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애드플러스(EdPlus)라는 독자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고, 지금은 하버드와 MIT가 만든 에드엑스(edX)와 협업해 전 세계에서 누구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조나 주립대는 180여 개국 8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800여 개의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상위 4-5%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아이비리그 대학들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업과 현장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 있다. 스타벅스, 아디다스, 메이오 클리닉, 우버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넓은 대학부지에 직접 기업을 유치해 산학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혁신동력은 마이클 크로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성원의 노력에서 나온다. '미래를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수,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가 함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어떻게 영향력을 만들 것인지, 그러한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기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 피워내는, 4월은 잔인한 달



강은숙

광주시 돌봄정책과장

이맘때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어김없이 들린다. 이 문구는 영국 시인 T.S.엘리엇의 대표작인 장편시 '황무지' 첫 행에 나오는 표현이다. '황무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삶과 죽음에 대한 번뇌를 다룬 작품이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다. 파릇파릇 풀이난 새싹을 보면서 한껏 들뜨고 기뻐할 생동감 넘치는 계절인데 시인은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아마도 겨우내 흰눈에 덮여 모두가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 모든 것이 평온한 상태로 보였지만 날이 풀리면서 군중이 여기저기 모여 자신들의 욕구나 불만을 표출하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들려 현실의 고통이 더욱 괴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땅과 나무에서 라일락이 피어나는 모습을 시인은 어쩌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해 본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불확실하고 알 수 없

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일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크고 작은 조직의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예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노쇠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살아온 지역과 가족을 떠나 병원과 시설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21년 광주 복지실태조사에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 입소시키기 보다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72.6%가 동의했다.

광주시는 이런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민선 8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을 목표로 사회복지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최대한 만족스럽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돌봄을 통합해 세대, 계층, 욕구의 경계를 넘어 돌봄과 돌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틈새와 돌봄이 개입하기 직전까지의 긴급한 상황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촘촘하게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런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본인의 일상을 포

기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다 생의 마감까지 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도·도시가스·택배 관련 인력과 AI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계적 유행의 각종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을 연계한 필수 의료 체계도 강화했고 여기에는 응급의료는 물론 소아, 정신, 분만, 감염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도 포함했다.

우리가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하는 일이 전쟁만은 아닐 것이다. 하루하루 본인의 생을 영면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며 전장같은 하루를 버티는 우리 주변의 이웃도 있다. 가족이나 마땅한 거처도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 찾은 '노숙인 쉼터'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폭박촌'도 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공동세탁·샤워실, 식당·카페, 일자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도 얼마전 문을 열었다.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불확실한 내일이라는 '노숙자'에 '계획'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이라는 색깔을 덧칠하는 작업과 같고 황무지에서 라일락이 피어오르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독자투고

치명적인 마약... 양귀비는 더 이상 약초가 아냐



양귀비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어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진통, 진정, 지사 효과를 낸다. 과거의 약품이 없었을 때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허리나 다리가 안 좋은 어르신은 양귀비를 재배한다.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로 분류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인 양귀비는 잎과 줄기가 매끈하고, 씨방이 작으며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뤄져 있다. 크기는 1.2~2m 정도 자란다. 꽃봉오리와 줄기 털의 유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나

마약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인 것은 동일하나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띤다. 또한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은 반면 마약양귀비는 대부분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다.

어떠한 이유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돼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 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60, 70대 노인들이 단속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 안타까운 실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다 과거의 산물과 무지에서 생기는 결과로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양귀비는 마약이며 재배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도 중요하다.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상순까지 특별단속에 나서는 만큼 논밭이나 집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그냥 방치했다더라 처벌될 수 있으니 평소 양귀비와 꽃양귀비를 구분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중·해남경찰서 육천파출소 경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도-범도민추진위 의대 신설 공모에 공감했지만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진행키로 하면서 동·서부권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첫 관문을 넘은 듯 하지만 앞으로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영록 지사는 범도민위와 간담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통합의대는 제반 여건상 물리적으로 어렵고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능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의대는 장기 과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후 범도민위 집행위는 전원으로 의결, 김 지사에 힘을 실었다.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모 형식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순천대에 설립해야 한

다는 동부권과 목포대를 주장하는 서부권은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때 공동 유치 의사를 보였으나 전남도의 입장 변화와 함께 역시 급진화,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일단 김 지사가 다음주 해당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등과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모 위탁기관의 공정·중립성 확보, 참여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권 의대를 놓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 갈등이 정도를 넘어선 격화되는 모습이다. 소통 없는 일방적 불통행정이자 도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대학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규모도 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8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삼았다. 도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조속히 돌파구를 찾았는지 주목된다.

첨단3지구 설립 광주 AI영재고 후속 절차 만전을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AI 영재고등학교 부지가 광주 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옆으로 확정되면서 신설에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당초부터 지스트 부설로 협업 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였다. 충분히 부합하는 결정이다.

AI집적단지의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연계, 양질의 교육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차세대 특화학교 AI영재고는 광주과학기술원 일부 개장안이 공포대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면적 2만40㎡ 부지에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 동을 1천여원을 들여 건립한다. 광주시는 올해 실시설계비로 국비 31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초·중학생의 관심 유도를 통한 입문교육부터 영재고, 대학의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대학원, 사관학교까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을 시작으로 탄탄한 교육과정을 통해 뛰어난 전문인력을 배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제5기 교육생 300명 선발에는 광주 40명, 수도권 105명, 기타 지역 115명 등 모두 712명이 지원해 경쟁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다. 앞으로 후속 절차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시가 그동안 노력해온 사업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참가 등으로 구글 클라우드·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들이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물꼬를 텄다.

AI영재고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건축공사를 마친다. 첨단3지구 AI 기반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클러스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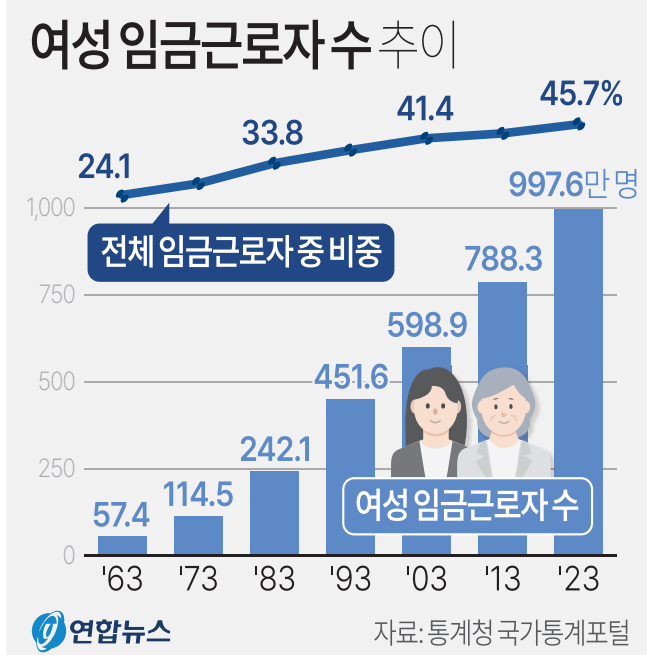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작년 여성 임금근로자 약 1천만명 최대...비중도 45.7% 최고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천명 증가한 997만6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이는 60년 전인 1963년의 17.4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85만3천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천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였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천246만4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